

여성탈북기의 ‘미국화’ 장치들

이지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목차

- 1 탈북 의제의 국제화와 여성탈북기가 놓인 자리
- 2 탈북 여성의 ‘소녀화’와 종착지로서 미국
- 3 독자 욕망의 반영 장치로서 ‘유령작가’
- 4 (신)냉전 세계지도의 재생산과 여성들의 ‘입국의례’
- 5 결론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8732).

본 논문은 2010년대 미국에서 출간된 여성탈북기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이들 텍스트가 ‘미국화’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서사(학)적 장치를 분석해낸다. 이때 여성탈북기의 ‘미국화’란, 북한 주민 인권 문제로 의제화되고 있는 보편 담론이 미국의 인권 담론을 특권화하는 방식으로 생산·소비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탈북기의 ‘미국화’ 장치는 첫째, 탈북 여성의 ‘소녀화’이다. ‘무고한 소녀’의 이미지는 북한의 전체주의와 대조되어 현실의 참상을 더욱 실감나게 전달하지만, 그만큼 북한 여성들은 미성년화되고, 그 소녀들이 향하는 미국은 이상적이고 관대한 세계로 표상된다. 둘째, 내포독자의 욕망을 반영하는 ‘유령작가’이다. 유령작가는 탈북자 증언의 내용을 서구 독자에게 ‘읽힐 수 있는’ 텍스트로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읽힐 수 있는’ 텍스트란 단지 언어적 번역만이 아니라, 서구 독자에게 익숙한 문화적·이데올로기적 변안까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신)냉전 세계 지도의 재생산이다. 탈북기는 증언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 ‘북한→중국(→몽골)→남한→미국’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각 나라의 재현은 냉전 체제를 (재)생산한다. 북한은 ‘권력 과잉’의 전체주의 국가로, 중국은 치안 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자연 상태’로 그려진다. 이들의 반대편에 놓인 미국은 자유세계로 그려지며, 남한은 이곳에 도달하기 위한 경유지로 나타난다. 여성탈북기의 ‘미국화’ 장치들을 규명하는 일은 서발턴의 말하기가 언제나 지배 담론에 포획될 위협에 놓여 있음을 재확인하고, 탈북 텍스트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이 오직 탈북자에만 귀속되는 담론 구조를 해체하는 데 일조한다.

국문핵심어: 북한이탈주민, 수기, 여성서사, 유령작가, 박연미, 이현서, 김은선, 김은주

1 탈북 의제의 국제화와 여성탈북기가 놓인 자리

2010년대 중반부터 탈북자의 ‘수기(memoir)’ 형태를 띤 텍스트가 영어권에서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했고, 이들은 빠르게 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출판되었

다. ‘탈북기’¹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문제가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의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적 전향을 의미하는 ‘귀순(歸順)’이나 월경의 방향을 표시하는 ‘월남(越南)’과 달리, ‘탈북(脫北)’이라는 개념에는 이데올로기적·지리적 귀착지가 전제되지 않는다. 이는 탈북자 가운데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를 선호하거나, 남한에 도착한 후에 또다시 국경을 넘어 난민이 되는 이들이 증가하는 데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서구 국가에 난민 신청자로 임시 거주하거나 난민 지위를 획득하여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히 증가해왔다.² 탈북자 텍스트가 세계적 주목을 받은 또 하나의 배경은 2000년대 이후 북한이 서방세계에 ‘악의 축(Axis of evil)’이라는 위협적 존재로 부상한 데 있다. 영미권에서 본격화된 탈북기 출판은 “국제정치적 상황 및 국제인권 레짐과 긴밀하게 연동”³된 현상이었다.

-
- 1 2010년대 영미권에서 출간된 탈북자들의 책은 주로 ‘유령작가(ghost writer)’의 도움으로 영어로 쓰였으나, 탈북자 당사자를 1인칭 서술자로 하고 있어 ‘수기(memoir)’의 형태를 띤다. 자서전·회고록·수기 등이 전문 작가에 의해 대신 쓰이는 경우는 흔한 현상이지만, 이 글에서는 ‘탈북자 - 서구 독자’ 사이에 있는 유령작가의 특수한 기능에 주목한다. 따라서 보고는 ‘자신의 체험을 직접 쓴 기록’이라는 의미를 지닌 ‘수기’라는 용어 대신, 탈북자의 탈북 과정을 담은 텍스트라는 뜻에서 ‘탈북기’, 또는 ‘탈북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탈북기의 주인공(=서술자)을 가리킬 때에는 텍스트에 의해 구성된 인물이라는 의미에서 ‘나’라 표기해야 맞지만, 본문에서는 여러 텍스트를 다루기 위해 편의상 각 텍스트의 증언자 이름을 기입하였다. 본문에서 탈북자의 이름을 기입하긴 하지만, 이는 실제 탈북자가 아니라 텍스트 속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 2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 데이터를 참조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 300~400명에 머물던 난민 및 난민 신청자 수가 200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에 2000명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는다. 다만, 탈북 난민 및 난민 신청자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기엔 북한 당국의 통제, 코로나19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감소 추세를 단순히 해외 거주 희망자의 감소라고 할 수는 없다. 해외 거주 탈북자에 관해서는 노현우·김아영, 「이주체계이론으로 본 북한 이주민의 서구 국가 이주 요인: 영국과 캐나다 사례 분석」, 『통일정책연구』 Vol.31 No.2, 통일연구원, 2022, 3-5쪽.
 - 3 김성경, 「글로벌 대중문화와 생존자의 이야기: 해외출판 탈북 여성 수기의 식민적 시선과 젠더화된 서사」, 『한국여성학』 Vol.38 No.2, 한국여성학회, 2022, 2쪽.

탈북기의 생산·소비는 국제정치적 이슈와 밀접하게 연동되지만, 탈북기가 체제 고발과 인권 수호를 목적으로 한 증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북한 사회의 실상이나 탈북자의 취약성, 월경 과정의 고난 등 텍스트 내적 층위를 주목하게 된다.⁴ 이러한 관점은 탈북자의 증언에 대한 충실한 독해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 텍스트 안팎에서 작동하고 있는 자본주의·식민주의 권력을 소거한 채 서사 그 자체만을 분석함으로써 텍스트가 기반하고 있는 헤게모니를 강화·재생산할 수 있다. 특히 영미권 출판 시장에서 생산된 텍스트를 곧바로 북한 사회에 대한 ‘진실’로 이해하는 방식은 일견 탈북자의 증언에 대한 신뢰로 보이지만, 텍스트의 진실성 논란이 발생할 때 그 책임을 오롯이 탈북자에게만 전가하는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한편, 기존 연구 가운데는 탈북기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에 주목한 논의도 있지만, 그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오리엔탈리즘에 기반하고 있어 문제적이다.⁵

반면, 증언의 진실성 논란, 국제정치의 변화, 출판산업의 상업주의 등 텍스트 안팎의 복잡한 맥락을 고려한 독해의 시각들이 제출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수기’라는 형식이 서술자와 증언자를 동일시하면서 곧바로 텍스트의 내용을 진실로 이해하게 한다는 점을 경계하여, 수기의 문학적 성격에 주목한 연구들이 제출되었다.⁶ 탈북 텍스트를 둘러싼 복잡한 맥락을 고려하여 탈북자 ‘수기에 나타나

4 이소희, 「탈북이주여성 자전적 서사에 나타난 생존의 정치학: 박연미의 『살기 위해서』를 중심으로」, 『영미문학페미니즘』 Vol.28 No.3,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20; Brandon K. Gauthier, “Hope By Itself Is Not Enough : the soft power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29. no. 2, Fall/Winter 2015.

5 존 쿠센(John Cussen)은 탈북기가 기존의 논픽션 장르와 성격을 공유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탈북 회고록은 로동신문 사실이나 물냉면 한 그릇처럼 명백하게 북한적인 회고록의 한 유형”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허구성’이라 하든 ‘진실성의 결여’라고 하든 그것을 탈북기 그 자체의 속성으로 이해하면 또다시 ‘탈북자는 거짓말쟁이’라는 기존의 담론으로 회수되고 만다. (John Cussen, “On the Call to Dismiss North Korean Defectors’ Memoirs and on Their Dark American Alternative”, *Korean Studies* Vol. 40, Honolulu: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6, p. 148.)

6 배개화는 탈북자 수기가 “서사라는 문학적 성격과 사실에 대한 증언이라는 저널리즘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문학적 저널리즘(literary journalism)’이라는 개념으로 탈북기를 분석하였다. 김경연·황국명은 탈북자 수기를 ‘문학/허구’와 ‘기록/

는 고통의 형상화와 감정, 도덕, 자본의 다중적 속성은, 그것이 인권이나 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단 하나의 시각으로만 환원될 수 없”다는 지적은 탈북기 독해의 중요한 시각을 제시한다.⁷ 나아가 최근에는 영어권에서 출간된 탈북기를 ‘고통의 문화산업’의 출판 상품으로 보고, 타자의 고통을 소비 상품으로 만드는 데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피는 논의가 제출되었다. 이는 여성탈북기가 “‘증언’의 성격이 짙은 탈북 남성의 수기”와는 달리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을 표지 전면에 내세우면서, ‘무고한’ 여성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서사화하고 그녀들의 역경에 맞선 용기를 가시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탈북 여성의 고난과 역경이 ‘고통의 문화산업’ 속에서 서구 자유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이야기로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⁸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시각을 공유하면서, 이 글은 특히 영어로 출간된 여성탈북기를 대상으로 이들 텍스트가 물질·이데올로기적 지배구조 속에서 굴절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고발, 혹은 북한 주민 인권 문제로 의제화되고 있는 여성탈북기는 기실 미국의 인권 담론을 특권화하는 방식으로 생산·소비됨으로써 보편인권 의제의 ‘미국화(Americanization)’, 혹은 정의의 ‘미국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라틴아메리카의 증언을 연구한 존 베벌리(John Beverley)는 하위주체 연구가 하위주체를 “재현”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재현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강조한다. 하위주체 연구는 서발턴의 재현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에 하위주체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⁹ 있다는 것이다. 탈북 텍스트가 놓인 담론장의 구조 역시 공적 영역에서 서발턴의 말하기 장소의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혹은 말하기 장소가 확보되었다고 하

증언’ 사이에 위치하는 경계적 글쓰기로 보고, 증언의 사실성/신빙성을 탐지하기보다 자기 의미화 과정에 내재한 억압이나 잠재된 정치를 읽어내려고 시도하였다. 배개화, 「탈북의 서사화와 문학적 저널리즘-장진성과 지현아의 탈북 수기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No. 17, 구보학회, 2017, 233쪽; 김경연·황국명, 「경계에서 이야기하기: 탈북여성의 자기서사와 ‘다른’ 고백의 정치」, 『코기토』 No. 97,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96쪽.

- 7 서세립, 「탈북자 수기에 나타난 감정과 도덕」, 『이화어문논집』 Vol. 45, 이화어문학회, 2018, 178쪽.
- 8 김성경, 앞의 논문, 3-4쪽.
- 9 존 베벌리, 박정원 역, 『하위주체성과 재현』, 그린비, 2013, 113쪽.

더라도 그것이 기존 헤게모니에 포획되기 얼마나 쉬운지 보여준다. 이 논문은 영어로 출간된 여성탈북기에 내장되어 있는 ‘미국화’ 장치들을 서사(학)적 층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텍스트를 둘러싼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가시화하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탈북자들이 이중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¹⁰

2 탈북여성의 ‘소녀화’와 종착지로서 미국

먼저, 탈북기의 젠더화 현상은 책의 표지에서부터 선명하게 나타난다. 아래는 영어로 출간된 대표적인 탈북 텍스트의 표지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A Thousand Miles to Freedom (St.Martin's Griffin, 2015)	In Order to Live (Penguin, 2015)	The Girl with Seven names (William Collins, 2015)	Dear Leader (Rider Books, 2014)	Every Falling Star (Amulet Books, 2016)

10 본고는 영어로 출판된 김은선(김은주), 이현서, 박연미의 탈북기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텍스트의 판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한국어/일본어 번역판을 참조하였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경우 한국어판을 인용하였다. 서지는 다음과 같다. (이하 서명과 페이지만 표기)

Hyeonseo Lee and David John, *The Girl with Seven Names: Escape from North Koera*, London: William Collins, 2015; Yeonmi Park and Maryanne Vollers, *In Order to Live: A North Korean Girl's Journey to Freedom*, New York: Penguin, 2015; 박연미, 정지현 옮김,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 21세기북스, 2015; パク・ヨンミ, 満園眞木訳, 『生きるための選擇 一少女は13歳のとき、脱北することを決意して川を渡った』, 辰巳出版, 2015; Eunsun Kim and Sébastien Falletti, trans. David Tian, *A Thousand Miles to Freedom: My Escape from North Korea*, New York: St. Martin's Griffin, 2015; 세바스티앙 팔레티·김은주, 문은실 옮김, 『열한 살의 유서』, 씨앤아이북스, 2013.

장진성의 *Dear Leader*(④)는 영미권에서 탈북자 텍스트 붐의 시작을 알린 상징적인 텍스트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경애하는 지도자에게’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영어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이는 위의 텍스트들 가운데 탈북자가 단독 저자로 기입되어 있는 유일한 경우이다. 나머지 텍스트들은 영어권(③은 프랑스어) 저널리스트 혹은 전문 전기작가인 ‘유령작가(Ghost Writer)’의 ‘도움’으로 출간되었다. *Dear Leader*는 출간 첫날부터 2주간 아마존닷컴의 아시아정치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저자인 장진성은 영국의 더타임즈 매거진의 표지 인물로 소개되기도 했다.¹¹ 이 책은 화제가 되었던 만큼 여러 판본이 존재하는데, ④의 경우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기(A Look Inside North Korea)”라는 부제에 맞게 군인들이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 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 북한 국기 등을 삽입한 표지가 존재한다. *Every Falling Star*(⑤)는 북한 공산당 간부 아들이었던 이성주가 아버지의 정치적 몰락 이후 꽃제비의 삶을 살다가 탈북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표지에는 북한 국기를 환기하는 빨간 별과 도망자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다. 이에 반해 여성 탈북자의 텍스트(①~③)는 젊은 여성 증언자의 얼굴을 전면화한다. 남성 탈북기의 표지가 ‘불량국가’, ‘베일에 싸인 국가’ 등 서구 사회의 북한 인식을 반영하여 체제나 국가를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활용한다면, 여성탈북기의 표지는 증언자의 얼굴을 부각하면서 탈북 서사를 개인화하는 동시에 탈북자의 섹슈얼리티를 부각한다.

그런데 ①~③의 텍스트를 읽어보면, 이들은 사진이 보여주는 이미지보다 훨씬 험난한 역경을 헤쳐 왔음을 알 수 있다. *A Thousand Miles to Freedom*(①)¹²의 김은선은 1986년 두만강에서 멀지 않은 공업도시 은덕에서 태어났다. 1997년 대기근이 닥치기 전까지 그다지 부족하지 않은 생활을 하였으나, 기아에 아빠를 잃고 남은 가족마저 생존이 위태롭게 되었다. 이에 세 모녀(엄마, 언니, 김은선)는 1998년 초부터 유랑의 삶을 시작하게 되고, 급기야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11 「탈북작가 장진성」, 『조선일보』, 2014.5.30.

12 이 책은 2012년 프랑스어로 출판되었다가, 이듬해 한국어로 번역되고, 다시 2015년에 영어로 번역·출판된 것이다. 영어·프랑스어판에서 저자는 ‘김은선’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북에 남아있는 친척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쓴 것이라 한다. 한국어판은 ‘김은주’로 표기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영어판 표기를 따라 ‘김은선’이라 지칭한다.

넘어간다. 별다른 계획이 없던 세 모녀는 중국에서 만난 낯선 이의 속임수에 빠지고, 그리하여 엄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시골 남자의 ‘부인’으로 팔려 간다. 세 모녀는 중국인 남자의 집에서 온갖 학대를 당하고, 특히 엄마는 아들을 낳으라는 강요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엄마는 중국인 남자의 아들을 낳지만, 남자쪽 가족들의 학대와 공안의 검문 때문에 그 집에서 더이상 지낼 수 없게 된다. 세 모녀는 남자의 집에서 도망쳐 연길, 다롄, 상하이 등지에서 생활하다 돈을 모아 몽골 고비 사막을 통과해 남한에 입국하게 된다. 세 모녀는 1998년 집을 떠나 2006년 남한 국적을 얻기까지 무려 9년 동안 불법체류자로서 불안정한 삶을 살아냈다.

In Order to Live(②)의 박연미 또한 국경도시 혜산에서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아버지의 밀수 사업이 당국에 발각되어 어려움에 처한다. 거기다 1990년대 후반 대기근까지 겹쳐 박연미의 집안은 극도로 궁핍해진다. 이에 언니가 먼저 압록강을 건너고, 뒤이어 박연미와 엄마가 탈북한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인신매매로 팔려가 시골 농부의 ‘아내’가 되고, 박연미는 인신매매 브로커에게 붙잡혀 그의 일을 돕게 된다. 북한의 국경 도시에서 보낸 풍족한 어린 시절과 대기근으로 인한 극단적 궁핍, 아버지 없이 세 모녀가 감행한 탈북, 인신매매 업자에 속아 중국인 시골 남자의 ‘아내’가 된 엄마 등 김은선과 박연미의 탈북기는 공유하는 요소가 많다. 그러나 박연미 텍스트는 중국에서의 삶이 굉장히 극화되어 있어 다른 탈북기들과 구별된다. 너무 어려서 매매혼의 위기를 모면한 박연미는 우여곡절 끝에 인신매매 브로커 조직 대장의 애인이자 사업 파트너로 활약하게 된다. 탈북 여성인 박연미가 비슷한 처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매매혼 사업을 하게 된 것도 문제적이지만, 그 과정에 벌어지는 사건들은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한다. 박연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팔려 간 엄마를 다시 ‘사 오고’, 또 북한에 남아있던 아빠를 중국으로 데려온다. 그러나 아버지는 중국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박연미와 그의 엄마는 중국인 브로커와 결별하고 몽골의 고비 사막을 경유하여 남한에 입국한다. 그리고 박연미는 남한에서 언니 은미와 재회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The Girl with Seven Names*(③)의 이현서의 탈북 과정은 위의 두 텍스트와 다소 차이가 난다. 이현서는 열일곱 살에 잠깐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생

각으로 압록강을 건넜다가 탈북 사실이 당국에 발각되어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게 된다. 이 책의 제목 ‘7개 이름의 소녀’는 불법체류자였던 이현서가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 이름을 계속 바꾸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앞의 두 텍스트에서 보았듯, 탈북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인신매매를 통해 국경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현서의 경우 중국에 지인이나 친척이 있었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 중국어와 한자를 배워둔 덕에 여러 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조선족 신분증을 사 비교적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상하이에서는 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도 했다. 또, 브로커의 주선으로 제3국을 통과하여 남한에 입국하는 보통의 탈북 경로와 달리, 이현서는 중국인 여권으로 곧바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망명을 요청하는 명민함을 보인다. 이현서는 스물여덟 살에 드디어 남한의 시민권을 얻고, 이후 엄마와 남동생도 남한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한다.¹³

공교롭게도 세 텍스트의 주인공 모두 남한에 오기 전에 아버지를 잃는다. 박연미(②)나 이현서(③)는 경제적으로 가장 역할을 하며 가족들을 무사히 탈출시킨다. 김은선(①) 또한 남한 입국 과정에서 중국에 남기로 한 언니를 대신하여 엄마를 돌본다. 이처럼 텍스트의 주인공은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구심점이 되지만, 흥미롭게도 이들 탈북기의 곁텍스트(paratext)에는 한결같이 그녀들을 ‘소녀(girl)’라 일컫는다. 가령, 박연미 텍스트의 부제는 ‘자유를 향한 북한 소녀의 여정’이고, 이현서 텍스트의 제목은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이다. 김은선의 *A Thousand Miles to Freedom*(①)의 경우 ‘소녀’라는 말이 제목에 나타나진 않지만, 책 뒤표지의 추천사들은 김은선을 ‘소녀’라 지칭하고 있다.

‘자유를 향한 천 마일’에서는 유난히 영리한 소녀가 당신의 손을 잡고 북한의 어둠 속으로 안내합니다. 그 소녀가 당신의 손을 놓았을 때, 그녀

13 이와 같은 점에서 배개화는 “이현서의 수기는 이름 바꾸기와 새로운 시민권의 구매/획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는 적극적인 면모와 인류애에 토대를 둔 ‘세계시민권’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초국가적인 주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고평한다.(배개화, 「한 탈북 여성의 국경 넘기와 초국가적 주체의 가능성」, 『춘원연구학보』 No. 11, 춘원연구학회, 2017, 211쪽.)

는 20대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고, 당신은 세계 최후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삶의 질감을 느꼈습니다.

—블레인 하든(Blaine Harden),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캠프 14로부터의 탈출’ 저자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소녀의 아름답고 잊히지 않는 이야기.
중요한 만큼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조지 미첼(George Mitchell) 상원의원 (강조-인용자)¹⁴

추천사들은 공통적으로 북한 소녀가 어둠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를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텍스트들이 출간될 당시 여성 탈북자들은 모두 20~30대의 성인이었다. 이들이 북한 국경을 넘기 시작한 나이가 십 대였으므로 소녀라는 표현을 썼으리라 추측할 수도 있지만, 그 용례가 증언자들의 어린 시절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어느 서평에서는 “이 책이 십 대 소녀의 일기처럼 단순하게 쓰여있다. 그러나 김 정권의 인권 범죄에 대한 귀중한 기록이자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놀라운 자료이며, 인간의 끈질긴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다.”¹⁵라고 평한다. 그런데 김은선의 탈북기는 저널리스트가 쓰고, 번역가가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십 대 소녀의 일기처럼 단순하게” 쓰일 이유가 없다. 제목, 부제, 추천사 등과 같은 곁텍스트부터 서술 층위에 이르기까지 텍스트는 일관되게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온’ 탈북 여성들을 ‘소녀화’

14 “In *A Thousand Miles to Freedom*, an exceptionally bright young girl grabs your hand and leads you down into the darkness of North Korea. When she lets go of your hand, she is in her twenties and joyously free—and you have felt the texture of life in the world’s last totalitarian state.

—Blaine Harden,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of *Escape from Camp 14*. The beautiful and haunting story of a girl who survived against all odds… A must-read, as compelling as it is important.

—Senator George Mitchell” (*A Thousand Mile to Freedom*, 뒤표지)

15 Alice Stephens, “Book Review: *A Thousand Miles to Freedom: My Escape from North Korea*”, *Washington Independent Review of Books*, 2015.8.17.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소녀화’는 때로 탈북 여성 스스로가 취하는 행위성(agency)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호주의 저널리스트 매리 앤 졸리(Mary Ann Jolley)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높은 허리와 풍성한 치마가 돋보이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눈물을 닦으며” “세뇌당했던 일, 처형 장면을 목격했던 일”,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강간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것”¹⁶ 등을 말하는 박연미에게 공감하지 않기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곧이어 그는 박연미 증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박연미가 동양적이고 소녀적인 연출을 통해 진실하지 못한 증언을 서구 청중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리 앤 졸리가 지적하는 이 장면은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에서 박연미가 했던 연설을 말하는데, 실제로 박연미는 이 연설을 통해 “일약 ‘북한 인권의 아이콘’으로 떠”¹⁷올랐다. 탈북 여성, 즉 비-서구인, 비-남성, (‘탈북자’로서) 비-국민이라는 중층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있는 박연미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취했고, 모순적이게도 그 전략은 자신을 취약하게 만든 그 권력—이를 테면 여성 섹슈얼리티를 소비하고 착취하는 구조—에 의지하거나, 혹은 그것을 재생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는 박연미 혹은 탈북 여성만의 문제라기보다 서발턴의 말하기가 갖는 구조적인 난점이다. 서발턴은 지배체제에 자신의 말이 ‘들리게’ 하기 위해 주류적 질서와 타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연미의 말하기 전략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헤게모니적 담론이 여성 탈북자 증언을 포획하는 방식과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녀화’된 목소리는 비판적으로 논의되기보다 오히려 북한 체제를 고발하는 효과적인 장치로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주민 서사를 연구하는 가르시아(Garcia)는 기존의 수용소를 다룬 성인 남성의 텍스트와 달리 “인권 서술

16 Mary Ann Jolley, “The Strange Tale of Yeonmi Park”, *THE DIPLOMAT*, December 10, 2014, <<https://thediplomat.com/2014/12/the-strange-tale-of-yeonmi-park/>>, 2023.10.1.

17 「출판사 서평」, 2015.11.23.,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0709530>>, 2023.10.1.

에서 공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희생된 소녀의 목소리”¹⁸를 차용한 여성탈북기(①~③)에 주목한다. 이들 세 편의 텍스트는 소녀의 목소리를 취함으로써 독자의 감정에 효과적으로 호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한 분석이지만, 이 글은 탈북자를 ‘소녀화’하는 텍스트의 장치들이 서구 사회에 어떠한 탈북자 표상을 생산하고 있는지 간과하고 있다. 논자가 주장하듯, 연약하고 무고한 소녀의 목소리는 전체주의 북한 체제와 대비되면서 서구 독자에게 북한의 참상을 더욱 실감나게 전달하는 장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적인 호소’의 반대편에서 탈북자들은 ‘여성화’, ‘미성년화’된다. 이때 ‘북한 체제 vs 탈북자’가 ‘잔악함 vs 무고함·연약함’의 구도로 반복되는 만큼, 무고하고 연약한 난민들이 자유를 찾아 당도하는 미국은 북한이라는 악의 대적점에서 선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흥미롭게도 여러 판본으로 존재하는 여성 탈북 텍스트의 제목 가운데 유독 영어판의 제목들이 ‘자유세계=미국’의 표상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박연미의 *In Order to Live: A North Korean Girl's Journey to Freedom*(살기 위해: 자유를 향한 북한 소녀의 여정)(Penguin Press, 2015)이나 김은선의 *A Thousand Miles to Freedom: My Escape from North Korea*(자유를 향한 천 마일: 북한으로부터 나의 탈출)는 공통적으로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는 의미를 제목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들 텍스트는 공히 주인공이 ‘미국’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그런데 박연미 탈북기의 한국어판 제목은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이며, 일본어판은 ‘살기 위한 선택(生きるための選択)’이다. 일본어판 제목은 영어판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지만, ‘자유를 향한 북한 소녀의 여정’이라는 영어판 부제는 ‘소녀는 13세 때 탈북할 것을 결심하고 강을 건넜다(小女は13歳のとき、脱北することを決意して川を渡った)’로 바뀌었다. 김은선의 탈북기 또한 프랑스에서 발간될 때 제목은 ‘북한 지옥에서 탈출하기까지 9년(Corée du nord. 9 ans pour fuir l'enfer)’이었고,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열한 살의 유서’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다. 유독 영어로 출판된 여성 탈북기들이 ‘탈북=자유를 향한 여정’

18 Ana Belen Martinez Garcia, “Unearthing the Past: Bringing Ideological Indoctrination to Light in North Korean Girls’ Memoirs”, *AUTOBIOGRAPHY STUDIES*, Vol. 32, No. 3, 2017, p. 587.

이라는 등식을 반복하면서, 그 여정의 종착지로서 ‘자유 세계 = 미국’을 부각하고 있는 셈이다. 요컨대 탈북 여성이 무고하고 연약한 소녀로 표상되는 것과 함께 그녀들이 찾아가는 미국은 이상적인 세계로 표상된다.

다른 한편, 여성탈북기들은 증언자를 ‘소녀화’하면서도 여성 난민들이 겪는 성범죄를 선정적으로 재현하고 있어 문제적이다. 예컨대, *In Order to Live*의 ‘프롤로그’에는 엄마가 성폭행을 당하며 절규하는 소리를 어린 딸인 박연미가 듣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시간적 순서와도, 또 사건적 인과성과도 상관없이 가장 앞에 배치되어 독자에게 충격을 주고 텍스트에 대한 호기심과 몰입을 유발한다. 그러한 탓에 도입부에 나타난 성폭력 범죄는 상당히 불순한 의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남긴다. 나아가 텍스트에는 미성년이었던 박연미가 중국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인신매매 브로커에 협조하게 되는 과정도 상세히 나타난다. 물론 중국의 송환 정책에 의해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따라서 여성 탈북자들이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의 참상을 알려야/알아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여성 섹슈얼리티를 소비하는 것은 ‘윤리’라는 이름으로 성폭력 재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여지조차 삭제해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3 독자 욕망의 반영 장치로서 ‘유령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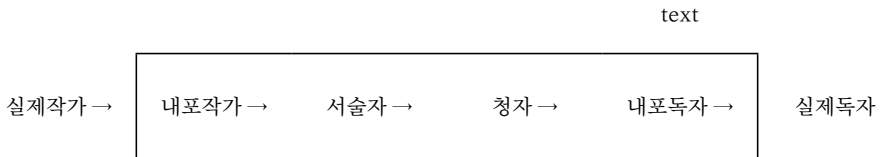
영어권에서 출간된 여성탈북기의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은 전문 전기 작가, 즉 ‘유령작가(ghost writer)’에 의해 쓰였다는 점이다. 탈북기가 고통의 문화산업에 의해 생산·소비되는 출판상품인 만큼 이는 해당 언어 독자의 기대지평이나 문화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기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에서 온 탈북자는 미국 혹은 서구 사회의 정치적·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때 증언자와 서구 사회 사이를 매개해 주는 이가 바로 ‘유령작가’로, 그는 단순히 언어적 장벽이나 글쓰기 능력을 보완하여 대필하는 게 아니라, 출판 기획에서부터 참여하기도 한다.¹⁹ 곧, 유령작가는 탈북자의 증언을 서구 독자에게 읽힐 수 있는 텍스트

19 *The Girl with Seven Names: Escape from North Korea*의 ‘공저자’인 이현서를 인터뷰한 김

로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점은 ‘읽힐 수 있음’이 단지 언어적 층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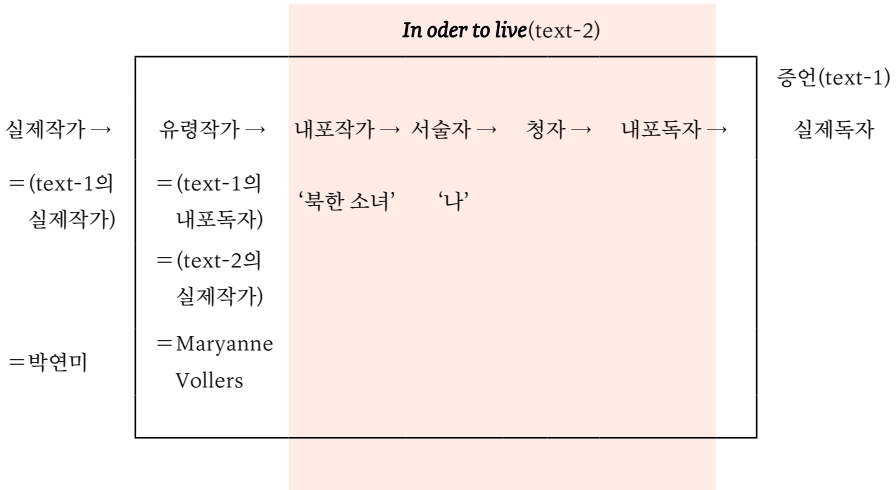
구조주의 서사학은 텍스트를 통해 ‘실제작가’에서 ‘실제독자’에 이르는 의사소통구조를 보여준다. 여기서 흥미로운 개념이 ‘내포작가’와 ‘내포독자’인데, 이는 실제 작가/독자와 달리 텍스트를 통해서 암시(implied)되는 존재이다. 곧, ‘내포작가’가 텍스트를 통해 작가로 짐작되는 존재라면, ‘내포독자’는 텍스트를 읽을 것이라 기대되는 독자이다. 단일 문화권·언어권 내부에서 생산·소비되는 텍스트의 경우 실제작가와 내포독자는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한다. 그러나 탈북 텍스트처럼 북한 출신의 증언자가 서구 독자를 상정하면서 텍스트를 작성할 때엔 언어와 문화적 코드의 변환이 요청된다. 증언자가 텍스트 전체를 장악하는 작가가 되지 못하는 곤란이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하게 된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고난과 새로운 주체로의 변화 과정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독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가 필요한데, 북한 사회에서 온 탈북자들은 서구권 독자와 공유하고 있는 컨텍스트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유명작가는 이 곤란한 비대칭 구조에서 ‘실제작가(=증언자)’와 ‘내포독자(=서구권 독자)’ 사이의 비대칭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1)-가



성경은 박연미의 텍스트가 “출판사가 기획 및 대필 작가 섭외까지 전적으로 책임진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이현서와 박연미의 수기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후에 출판된 상당수의 탈북 여성의 수기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대필 작가가 이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거나 먼저 탈북민에게 연락을 하여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탈북 남성의 수기는 본인들이 직접 원고를 가지고 해외 출판사를 찾은 경우”라고 한다. 김성경, 앞의 논문, p. 15 각주 4번 참조.

(1)-나



* 탈북 증언자는 ‘증언작가’로, 전문 전기작가나 저널리스트는 ‘유령작가’로 지칭한다.

(1)-가가 일반적인 텍스트 소통 구조라면, (1)-나는 *In Order to Live*를 예시로 탈북자(=박연미)가 증언하고 유령작가(=마리안 볼러스)가 쓴 탈북기의 소통 구조를 그린 것이다. 유령작가는 증언작가의 증언(text-1, 굵은 실선 부분)을 바탕으로 *In Order to Live*(text-2, 음영 부분)를 작성한다. 이때 *In Order to Live*는 증언(text-1)을 바탕으로 하지만, 증언을 가감하거나 윤색함으로써 증언과는 다른 텍스트(text-2)가 된다. 이와 같은 소통 구조에서 유령작가의 위치는 매우 독특하다. 증언(text-1)의 측면에서 보자면, 유령작가는 증언작가가 자신의 증언을 읽을/들을 것이라 예상하는 서구 독자 중 구체적으로 상상되는 한 명의 내포독자가 된다. 한편, *In Order to Live*(text-2)의 측면에서 보자면, 유령작가는 영어권 내포독자를 염두하고 텍스트를 집필하는 실제 작가다. 여기서 내포독자를 염두에 둔 작가의 전략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먼저, 증언작가는 문화적 맥락이 다른 유령작가를 독자로 상정하여 증언하고, 서구 내포 독자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유령작가는 그 증언을 또 다시 내포독자에게 읽힐 수 있게 변환한다. 결국 유령작가는 탈북자(=증언작가)와 서구권 독자(=내포독자) 사이에서 둘 사이의 언어·문화·정치적 코드를 변안(adaptation)하는 ‘아답터(adapter)’의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텍스트가 월경(越境)하여 이질적인 사회에서 소비되는 경우, 생산과 소

비가 이루어지는 각 사회의 언어적·문화적 간극이 발생시키는 문제는 일반적인 번역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탈북 텍스트의 경우 이 간극이 특히 넓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서구) 사이에 국제정치적, 그리고 오리엔탈리즘적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가령,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가 번역한 북한 작가 반디의 소설집 *Accusation*에는 북한의 가난이나 전체주의 스펙타클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번역가의 과도한 개입이 나타난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주소도 없는 그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하는 대목을 번역자는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장소”로 번역한다. 그리고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이 대목을 “지도에서 찾을 수 없는 어떤 곳”으로 번역할 수도 있었지만, “이동의 자유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사치품인 나라에서, 그런 구절이 내 마음에서 그런 것만큼 쉽게 떠오를까?”라는 생각으로 의역했다고 밝혔다.²⁰ 이는 탈북 텍스트의 번역에 북한에 대한 서구 사회의 편협한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번역자 또한 텍스트의 변이를 추동하는 일종의 유명작가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서구어로 쓰이고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탈북 텍스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수의 유명작가가 존재하는 셈이다.

아답터로서 유명작가를 염두에 두고 *In Order to Live*를 읽어보면, ‘나’(=박연미)라는 서술자의 목소리에는 ‘북한 소녀(North Korean girl)’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자주 발견된다. 단적인 예로, 박연미는 북한에 살 때 북한 당국이 엄격히 금지한 외국 영화를 보았다고 말한다. 이는 여러 탈북자의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경험담이기도 한데, 박연미 또한 “북한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 광고나 남한 드라마, 1년은 더 지난 레슬링 경기를 보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²¹는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박연미가 북한에서 보았다고 하는 영화의 목록은 중국 광고나 남한 드라마가 아닌 ‘〈신데렐라〉와 〈백

20 *The Accusation*(London: Serpentstail, 2017)은 익명의 북한작가 ‘반디’가 원고만 북한 바깥으로 내보내어 남한에서 『고발』(조갑제닷컴, 2014)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것을 2017년 데보라 스미스가 번역한 것이다. 데보라 스미스의 『고발』 번역에 관해서는 이지은, 「유동하는 텍스트(fluid text)와 북한 재현 양상」, 『춘원연구학보』 No. 13, 춘원연구학회, 2018, 522쪽.

21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 69쪽.

설공주〉, 〈007 시리즈〉”²²다. 특히 박연미는 “내 인생을 바꿔놓은 영화”²³로 〈타이타닉〉을 꼽는다. 영화의 주인공이 국가가 아닌 사랑을 위해 죽는다는 점에 놀라워하며, “해적판 〈타이타닉〉은 내가 처음으로 맛본 작은 자유”²⁴라고 말한다. 박연미가 북한에서 몰래 접한 자유세계의 문화는 미국적인 것들이다.

이와 같은 ‘미국 정신’은 남한 입국 후에도 탈북자를 자유세계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박연미는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라는 이유로 멸시 받거나 또는 정반대로 TV쇼에 출연해 탈북자라는 정체성을 연기하면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다. 박연미의 이름 앞에 붙는 ‘탈북 미녀’라는 수식어가 보여주듯, 남한에서 탈북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또 다시 소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박연미는 이러한 곤경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받는다”²⁵라는 신념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한다.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박연미는 또래 보다 저학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좋은 성과를 거둔다. 이때 박연미의 주체화와 자기발전을 이끄는 문화적·정신적 계기 또한 미국적인 것이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으로 시작해 그림과 사진이 들어 간 세계의 나라들에 대한 책으로 옮겨갔다. 로마 신화와 세계 역사에 관한 책을 샀고 에이브러햄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 힐러리 클린턴의 전기도 읽었다. 나는 미국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위인전을 좋아했는데 어려움이나 편견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도, 나조차 나를 믿지 않아도 성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주었다.²⁶ (강조-인용자)

역대 미국 대통령의 위인전을 언급하는 위의 대목은 박연미가 북한에서 〈타이타닉〉을 보고 자유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대목을 연상하게 한다. 박연미는 방송출

22 위의 책, 69-70쪽.

23 위의 책, 70쪽.

24 위의 책, 같은 쪽.

25 위의 책, 275쪽.

26 위의 책, 279쪽.

연 이후 어학연수를 통해 남한 바깥을 경험하고, 이번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로자 파크스 같은 미국 인권운동가들”²⁷의 전기를 읽으며 타인을 위해 살았던 이들의 삶을 알게 된다. 마침내 박연미는 선교단을 통해 미국에 방문하고, 이를 시작으로 코스타리카, 애틀란타 등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 한국에 돌아온 박연미는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영어 선생님과 함께 셰익스피어, 프레더릭 더글러스, 테드 강연, 미국 TV 시트콤 등을 접한다. 2014년 2월 캐나다 메이플 국제학교의 연설을 시작으로 박연미는 어느덧 “북한 인권 문제의 얼굴”²⁸이라 불리기 시작한다. 곧, 탈북자의 ‘성공 서사’는 미국 독자들에게 친숙한 문화적 기호들을 차용하여 이루어지고, 이는 동시에 미국의 표상을 조작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박연미의 텍스트에서 미국은 자유가 무엇인지 엿보게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동경을 품게 하는, ‘악의 축’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자유세계로만 표상된다.

4 (신)냉전 세계지도의 재생산과 여성들의 ‘입국의례’

탈북기의 ‘미국화’는 파편적인 문화 코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탈북기의 서사는 탈북자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 ‘북한→중국(→몽골)→남한→미국’로 이어지고, 미국은 자유를 향한 길고 험한 여정의 종착지가 된다. 이때 ‘자유세계=미국’을 전제하는 시각은 서술자가 이동하는 내내 작동하면서, (신)냉전의 세계 지도를 그려낸다. 거의 모든 탈북기에는 이동 경로를 도식화한 지도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 독자들은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미지의 장소를 탈북기 서술자의 시각에 따라 인식하기 쉽다. 박연미의 *In Order to Live*는 북한, 중국, 미국의 표상이 매우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먼저 북한의 평양에 대한 묘사는 아래와 같다.

내 꿈이 이루어진 것은 여덟 살 때였다.

북한에서 최상위 계층만 평양에서 살고 일할 수 있다. 방문할 때는 허가

27 위의 책, 300쪽.

28 위의 책, 313쪽.

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북한 주민에게 평양은 내 집 마당처럼 친숙한 곳이다. 수많은 그림책과 선전 영화에서 평양을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완벽한 본보기로 찬양하기 때문이다. 우뚝 솟은 기념물과 온갖 흥미진진하고 화려한 행사로 가득한 그곳은 신비로운 성지나 마찬가지로 붉은광장과 예루살렘, 디즈니랜드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도시인 것이다.(강조-인용자)²⁹

박연미는 평양에서 고층 빌딩과 넓은 도로, 전철, 택시, 엘리베이터, 탄산음료, 호화로운 레스토랑 등을 처음 경험하고, 만수대 앞 김일성 동상, 아리랑 축제의 대형 마스게임 등을 감상한다. 또, 평양에 며칠 머무르며 “김정일의 지시대로 평양의 모든 여성은 치마를 입”³⁰은 모습, 인민반 반장과 라디오 방송에 따라 “유기체의 세포처럼” “모든 일을 동시에”³¹ 해치우는 평양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지켜본다. 평양은 박연미가 자란 시골, 특히 꽃제비들이 출몰하는 지방과 구별되면서 아직은 산업과 활기가 남아있는 곳으로 그려진다. 평양으로 대표되는 특권층의 부, 전체주의적 스펙타클을 대표하는 마스게임과 대형 동상, 개인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공동생활 등은 독재 국가 북한을 표상하는 전형적인 이미지들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평양이 붉은광장, 예루살렘, 디즈니랜드가 한자리에 모인 도시로 표현되는 부분이다. 북한 정치의 중심부이자 김일성의 신격화를 위한 각종 기념물이 있는 곳, 그리고 특권층만의 부유함과 활기가 있는 평양은 구공산권의 상징적 장소인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과 기독교의 성지인 이스라엘, 그리고 어린아이를 매혹하는 상업적인 모험의 세계인 디즈니랜드로 비유된다.

반면, 북한의 시골마을은 ‘조선’으로 표상된다. 아버지의 암거래가 발각되면서 박연미는 시골에 있는 이모네에서 지내게 된다. 그런데 박연미의 시선에서 그려진 성남리 마을은 ‘고요한 아시아’의 이미지를 지닌다. 가령, 성남리의 마을 사람들은 시계도 없이 수탉의 울음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북한 전역을 덮

29 위의 책, 81쪽.

30 위의 책, 83쪽.

31 위의 책, 87쪽.

친 기근에 별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듯 넉넉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박연미는 “기이한 향수”를 느끼는데, 그 알 수 없는 향수의 정체는 “외할머니가 이야기해준 조선”³²에 대한 동경이다. 외할머니의 생년은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다만 그녀가 열 살에 고아가 되어 중국 투먼 농장에서 일하다가 해방 후 귀국, 1952년 청진 군수품공장에 있었다는 것만 나타난다. 외할아버지가 1931년생인 것으로 미루어 할머니의 생년을 그 전후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외할머니는 이외에도 제주의 푸른 바다, 고래, 해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그런데 ‘조선’, ‘제주’, ‘해녀’와 같은 표상들은 외할머니의 이력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 지역의 할머니와 손녀가 나누는 이야기로도 어색하게 들린다.

반면, 중국은 북한과 매우 대조적인 곳이다. 박연미의 가족은 북한에서 궁핍으로 인한 배고픔, 당국의 감시와 고문, 수용소 감금과 같은 고초를 겪었다. 이는 폭력을 독점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전체주의 독재국가로서 북한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박연미와 엄마가 겪는 일들, 이를 테면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팔려 나가고, 또는 사업 파트너가 되어 다른 여자들을 파는데 일조하는 일, 그리고 마약과 도박이 횡행하고, 여자문제로 폭력배 두목 간에 전쟁이 벌어지려 하는 일 등은 ‘자연상태’를 방불케 한다. 북한이 독재체제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되는 곳, 곧 권력이 과잉 작동하는 지대라면, 중국은 폭력과 자본만이 실효적 힘을 가진 무법지대처럼 그려진다. 물론 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탈북자의 취약한 지위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이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중국은 야만적인 곳으로 그려지게 된다.

물론 텍스트에서 중국 정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정부의 단속은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후 몇 달 동안은 무척 힘든 시간이었다. 인신매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이 시작되어 홍웨이의 사업은 더욱 위태로워졌고 수입도 줄어들었다. 당시는 2008년으로 온 나라가 여름에 개최될 베이징 올림픽 준비

32 위의 책, 107쪽.

로 분주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서양 국가들과 인권 단체들이 내부 이주자, 소수민족,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라고 압박해왔다. 우리는 몰랐지만 뉴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정부를 망신 주거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들이는 것으로 대응했다. 내가 아는 것은 그 당시 공안 매수 비용이 더 많이 들었고 공안들이 북한 난민을 추적해 빛의 속도로 강제 북송시킨다는 것뿐이었다. 농촌의 잠재 고객들은 공안이 갑자기 들이닥쳐 신부를 데려갈까 걱정되어 홍웨이의 여자들을 사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³³

인용문에서 박연미는 당시를 회고하며 인신매매가 잘 되지 않아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 이는 중국 정부의 단속 때문이었는데, 박연미는 중국 정부의 단속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서양 국가들과 인권 단체들”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평가한다. 중국 정부의 단속이 “정부를 망신 주거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들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곧, 중국정부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했던 것이 아니라, 국가 위신에 해가 되는 존재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뿐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을 ‘국가 통제의 과잉/부재’라는 극단적인 공간으로 그리며 ‘자유 세계=미국’을 완성하고 있는 텍스트의 구조를 염두에 둔다면, 중국이 꺼리고 있는 서양 국가들로부터의 망신은 기실 서양 독자들의 타자로서 중국과 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거울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텍스트에 재현된 중국은 무법지대로서 폭력과 야만적인 거래가 난무하는 곳이자, 인도적 의무가 아니라 국제적 위신만 챙기는 데 급급한 국가인데, 이는 중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구 독자의 기존 관념 속에 존재하는 중국 표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 중국과 확연히 대조가 되는 곳이다. 탈북자는 한국에서 국민 지위를 얻음으로써 이전보다는 안정된 지위를 얻지만, 여전히 남한 사회의 차별과 멸시에 노출된다. 따라서 한국은 완전한 자유세계로 표상되기보다, 그 자

33 위의 책, 199쪽.

유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경유지로 보인다. 탈북기에는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부당한 대우나 차별 등이 서술되어 있지만, 남한 독자를 대상으로 한 텍스트에서는 이를 토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예컨대 김은선 탈북기의 영어판에는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이 한국어판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유세계를 향한 여정’의 서사에서 남한을 경유지로, 미국을 종착지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분명하다.

(2)-가

물론 나에게 경계심을 보이며 늘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었다. 북한, 그러니까 적대 국가의 사람들과 엮이는 게 싫다는 것이었다. 남과 북이 1950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군사적인 대치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탈북자인 우리가 정부의 원조로 먹고산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하지만 나는 한국 여권이 있고, 투표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시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도 내고 있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또 언젠가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줄 의무가 있다.³⁴ (강조-인용자)

(2)-나

Others are indifferent, and some maintain their distance from me. They are wary of those from the north- the “enemies.” Don’t forget that officially, the two Koreas are still technically at war, and have been since 1950. Some South Koreans don’t like that we, the defectors, benefit from the system, thanks to government aid. And yet, I have a South Korean passport and I have the right to vote. I am just as much a citizen as everyone else here.

34 『열한 살의 유서』, 228-229쪽.

But some people, both young and old, don't think of me as an equal. They treat me like they treat immigrants from Southeast Asia, the Philippines, or Cambodia; the "poor people" they despise so much. ³⁵ (강조-인용자)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와 거리를 둔다. 그들은 북쪽에서 온 사람들, 즉 “적”을 경계한다. 공식적으로 남북한은 1950년 이래로 여전히 전쟁 중이다. 일부 남한 사람들은 탈북민인 우리가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투표권도 있다. 나도 여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국민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동남아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온 이민자, 즉 그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불쌍한 사람들’처럼 대한다.)

(2)는 한국에 입국한 뒤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김은선은 새로운 기회를 준 한국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탈북자를 꺼려하는 남한 사람들에 대해 말한다. 한국어판(2-가)은 이 단락을 “언젠가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여, 탈북자 또한 한국사회에 이익을 주는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영어판(2-나)에는 한국어판의 마지막 문장은 삭제되고, 대신 탈북자인 자신이 동남아시아 이민자들처럼 멸시받고 있다고 토로하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다. 인용문 외에도 영어판에는 “하지만 이곳에서[남한-인용자] 북쪽에서 온 난민들은 굶어 죽기를 거부한 것이 유일한 죄일 뿐인데도 여전히 2등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다”³⁶, “그들은[북한사람들-인용자] 한국 원주민에 비해 열등감을 느낀다. 그들은 한국인을 흉내 내려고 노력하지만, 한국인은 종종 그들을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본다. 나와 같은 다른 난

³⁵ *A Thousand Miles to Freedom*, p. 198.

³⁶ “And yet here, refugees from the north are still treated as second-class citizens, when the only sin we are guilty of is refusing to die from starvation.” *A Thousand Miles to freedom*, p. 14.

민들은 종종 분노를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³⁷ 등의 서술이 첨가되어 있다. 이 외에 남한 입국을 위해 국정원의 조사를 받은 일에 관해서는 한국어판과 영어판이 전혀 다른 소회를 전하기도 한다.³⁸

이현서의 경우에도 한국에 도착한 뒤 또다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된다. 중국에서는 시민권이 없어 내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북한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 때문에 또 다시 정체성을 숨겨야 했다. 그리하여 이현서는 남한 신분증을 가진다고 해서 남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특히 부유한 집안 출신의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흡사 북한의 성분제도와 비견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를 체감하고, 그 신분의 사다리 때문에 교육에 열을 올리는 한국 사회를 직시하면서 더욱 소외감을 느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현서에게 ‘서구(인)’은 구원 혹은 희망으로 나타난다. 이현서는 가족의 남한 입국을 추진하지만, 엄마와 동생은 라오스 국경에서 체포되어 수용소에 갇히고 만다. 그녀는 가진 돈을 모두 뇌물로 쏟아부었으나 그들을 빼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침내 여비가 모두 떨어지고, 비자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 되자 이현서는 절망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때 그녀에게 극적인 구원의 손길이 나타난다. 그 구원자는 호주에서 온 ‘키 큰 백인 남자’ 덕이다. 그는 오직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현서를 돕는다.

이현서는 라오스에서 덕을 만나고, 그의 지인들과 저녁을 먹으며 세계공통

37 “They feel inferior compared to the native South Koreans. They try to imitate South Koreans, but South Koreans often look at them with disdain. Often, other refugees like me start feeling resentful and fall into depression.” *A Thousand Miles to freedom*, p. 213.

38 탈북자 인정을 위한 조사는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는데, 이에 대해 한국어판에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빨리 자유를 맛보고 싶은 나에겐 답답하기만 했다”(『열한 살의 유서』, 209쪽)라고 서술되어 있지만, 영어판 *A Thousand Miles to freedom*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까다롭고, 끝이 없고, 과장된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스파이였다면 지금처럼 목숨을 걸고 그런 고난을 겪었을까?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 내 정직한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불쾌했다. (It all seemed so... fastidious, interminable, exaggerated to me. Would we have risked our lives as we'd done and gone through such hardships if we were spies? My pride was a little wounded. I didn't appreciate them questioning my honest intentions.)”(p. 177)라고 쓰여 있다.

어인 영어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한다. 이현서는 라오스에서 딕을 만난 이후 서양인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고, 딕과 같은 사람을 더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에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위스콘신 출신의 브라이언을 만난다. 이현서는 솔직하고 개방적인 브라이언에 반해 그와 만남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때 브라이언의 지성적이고 편견 없는 태도는 ‘미국’이라는 세계와 동일시된다.

브라이언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머러스하고도 자유로운 지성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검증되지 않은 생각들을 열게 했다. 그는 더 넓은 세계가 북한의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의 태도는 나로 하여금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의 엄청난 편견—미국에서라면 결코 경험하지 못할—에 맞서도록 했다. 내가 남한에서 알고 있던 탈북자들은 대부분 낮은 신분으로 비취질까 봐 두려워 자신들의 신분을 숨겼다. 나는 내 가족이 안전하게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었다.³⁹

이현서는 브라이언을 통해 ‘세계’가 북한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즉 미국인 브라이언은 이현서가 ‘세계’를 감각하는 매개가 되고, 그의 지성적이고 긍정적인 성격 혹은 그가 전해주는 가치관은 ‘미국’ 그 자체로 인식된다. 이현서는 탈북자에 대한 남한 사회의 편견을 토로하면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한다. 나아가 브라이언의 포용적이고 관용

39 “Brian was the first to show me a free intelligence, with a humorous, sceptical mind that took nothing as given. It made me open unexamined thoughts of my own. He made me realize that the wider world cares about the suffering in North Korea, and is well informed about it, too. His attitude emboldened me to confront the stultifying prejudice in South Korea against defectors – something they would never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Most defectors I knew in the South hid their identities out of fear of being seen as low-status. I was damned if I was going to hide mine. Now that my family was safely with me, I had nothing to hide.” (*The Girl with Seven Names*, p. 282.)

적인 태도는 미국인에 대한 탈북자의 편견을 없애기에 이른다. 이현서가 브라이언을 가족에게 소개해 줬을 때, 그들은 북한에서 배운 대로 브라이언을 ‘미국놈’이라 하며 적개심을 보인다. 이에 이현서는 탈북자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고 여기게 된다. 이현서의 서사는 그녀가 미국에서 브라이언과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 책의 결말부는 상징적이게도 이현서와 그녀의 어머니가 “양키 제국주의의 뱃속(belly of the Yankee imperialist beast)”⁴⁰, 즉 미국의 고층 빌딩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웨이트리스에게 커피 한 잔을 더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다. 이현서의 탈북기는 미국을 제국주의의 화신이라 배운 탈북자가 미국식 생활 방식을 향유하게 되는, 지리적인 동시에 이념적으로 미국에 귀착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와 같은 구조는 박연미의 텍스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박연미 또한 남한에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PC방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일반 학교 학생들은 말투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동물’ 보듯 한다. 심지어 엄마는 남한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또 다른 문제는 박연미가 언니를 찾기 위해 TV에 출현하면서 발생하는데, ‘탈북 미녀’로 이름을 얻게 되자 이번엔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탈북자, 예주”⁴¹의 역할을 연기해야 했다. 계산에서 굶주렸던 날들은 감추고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되는 답을 해주려고 노력”⁴²했다. 박연미는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라는 이유로 멸시 받거나 또는 정반대로 탈북자라는 정체성을 연기하면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때 박연미가 자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참조하는 모델은 에이브러햄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 힐러리 클린턴 등 미국 위인의 성공기이다. 이로써 “A North Korean Girl’s Journey to Freedom(북한 소녀의 자유를 향한 여정)”은 ‘자유세계 미국’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북한→중국(→몽골)→남한→미국’으로 이어지는 탈북 여성의 여정에서 국경을 넘을 때마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검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

40 위의 책, p. 288.

41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 295쪽.

42 위의 책, 296쪽.

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연미와 그녀의 엄마가 칭다오(靑島)에 있는 기독교 선교단을 통해 몽골을 경유하여 남한에 가고자 할 때, 이들은 선교단의 한국인 목사, 몽골의 난민수용소, 한국의 국정원 등 몇 차례에 걸쳐 과거 잘못을 고백하고 현재의 무결함을 증명해야 했다. 먼저, 탈북을 도와주는 기독교 선교단에서 박연미와 엄마는 회개를 강요받는다. 박연미는 성인채팅방에서 일했던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목사는 재차 모든 “죄”를 털어놓은 것이 맞는지 묻는다. 목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⁴³ 강조하고,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자 목사는 박연미에게 “남한에 가거든 제대로 된 삶을 살”⁴⁴라고 한다. 이렇게 고백과 회개를 거친 후, 이들은 중국 국경을 넘어 몽골 난민수용소에 도착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검문은 계속된다. 난민수용소에서 “여자들은 한 명씩 방으로 들여보내”지고, “여군이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다.⁴⁵ 이는 남한 입국 과정에서도 반복되는데, 박연미는 먼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은 후 “난민 보호 소라기보다는 감옥”⁴⁶에 가까운 곳으로 옮겨진다. 역시 “각자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은 후 철저히 몸수색을 당했”⁴⁷다. 앞서 목사가 정신적 충위에서의 속죄를 강요한다면, 국가 권력은 그것을 신체적 충위에서까지 폭력적으로 수행한다. 박연미는 일련의 과정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지만, 서사 구조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고백과 회개, 그리고 수색과 검진은 자유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의 기능을 한다. 곧,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전체주의 불량국가에서 온 여성들은 겹겹의 국경을 통과하는 동안 자유세계에 진입해도 되는 정신과 신체로 ‘거듭나는’ 것이다. 입국의례는 표면적으로 탈북여성들을 안전한 이주민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듯하지만, 이렇게 확보된 신뢰는 그것이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탈북자가 지배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순간 쉽게 험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43 위의 책, 232쪽.

44 위의 책, 234쪽.

45 위의 책, 248쪽.

46 위의 책, 253쪽.

47 위의 책, 254쪽.

5 결론

본 논문은 2010년대 미국에서 출간된 탈북 여성의 수기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여성탈북기가 ‘미국화’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서사적 장치를 드러냈다. 이때 여성탈북기의 ‘미국화’란,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고발, 혹은 북한 주민 인권 문제로 의제화되고 있는 보편 담론이 한반도 분단과 냉전체제 형성에 있어 미국의 책임을 삭제할 뿐 아니라, 미국의 인권 담론을 특권화하는 방식으로 생산·소비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는 유명작가의 도움으로 서구권에서 출간된 여성탈북기와 그 번역본을 분석하여 이와 같은 담론 구조를 강화하는 서사적 장치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첫째, 탈북 여성의 ‘소녀화’이다. 탈북 여성은 가족 내에서 실질적 가장 역할을 담당하고, 또 온갖 고초 끝에 국경 넘기에 성공하는 강인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결텍스트 및 서술 층위에서 이들은 ‘소녀(girl)’로 재현된다. ‘무고한 소녀’의 이미지는 북한의 전체주의와 대조되어 현실의 참상을 더욱 실감나게 전달하지만, 그만큼 탈북 여성들을 미성년화하고, 그 여성들이 향하는 자유세계 미국을 이상적이고 관대한 세계로 그려낸다. 둘째, 내포독자의 욕망을 반영하는 ‘유명작가’이다. 탈북기가 출판상품인 만큼 이는 서구 독자의 욕망과 인식지평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런데 북한에서 온 증언작가는 이 책을 읽으리라 예상되는 서구 독자들의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유명작가는 증언의 내용을 서구 독자에게 읽힐 수 있는 텍스트로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읽힐 수 있는’ 텍스트란 단지 언어적 번역만이 아니라, 서구 독자에게 익숙한 문화적·이데올로기적 변안까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본고는 여성탈북기에 등장하는, 북한 여성의 것이라 보기 어려운 미국적 문화 코드나 이데올로기를 유명작가의 변안의 결과로 보았다. 셋째, (신)냉전 세계 지도의 재생산이다. 탈북기는 증언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 ‘북한→중국(→몽골)→남한→미국’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각 나라의 재현은 냉전 체제를 (재)생산한다. 단적으로 북한이 ‘권력 과잉’의 전체주의 국가라면, 중국은 치안 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자연상태’로 그려진다. 이들의 반대편에 자유세계 미국이 그려지며, 남한은 자유세계를 가기 위한 경유지로 나타난다. 이때 여성들은 국경을 넘을 때마다 국가 권력에 의한 검문(신체검사, 검진)뿐 아니라, ‘훼손된 정조’에 대해 회개를 강요받기

도 한다. 이처럼 여성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여성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요되는 입국의례는 서사 구조 속에서 탈북여성들을 안전한 이주민으로 인식하게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전제로 이주민을 인정하는 인식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처럼 여성탈북기의 ‘미국화’ 장치들을 규명하는 일은 서발턴의 말하기가 언제나 지배 담론에 포획될 위험에 놓여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자, 탈북 텍스트 진실성에 대한 책임이 오직 탈북자에만 귀속되는 담론 구조를 해체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박연미, 정지현 옮김,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 21세기북스, 2015, 1-352쪽.

세바스티앙 팔레티·김은주, 문은실 옮김, 『열한 살의 유서』, 씨앤아이북스, 2013, 1-252쪽.

パク・ヨンミ, 満園眞木 訳, 『生きるための選擇 一少女は13歳のとき、脱北することを決意して川を渡った』, 辰巳出版, 2015, pp. 1-326.

Kim, Eunsun and Falletti, Sébastien, trans. David Tian, *A Thousand Miles to Freedom: My Escape from North Korea*, New York: St. Martin's Griffin, 2015, pp. 1-240.

Lee, Hyeonseo and David, John, *The Girl with Seven Names: Escape from North Korea*, London: William Collins, 2015, pp. 1-320.

Park, Yeonmi and Vollers, Maryanne, *In Order to Live: A North Korean Girl's Journey to Freedom*, New York: Penguin, 2015, pp. 1-290.

단행본

Beverley, John, 박정원 역, 『하위주체성과 재현』, 그린비, 2013, 113쪽.

논문

- 김성경, 「글로벌 대중문화와 생존자의 이야기: 해외출판 탈북 여성 수기의 식민적 시선과 젠더화된 서사」, 『한국여성학』 Vol.38 No.2, 한국여성학회, 2022, 1-32쪽.
- 김경연·황국명, 「경계에서 이야기하기: 탈북여성의 자기서사와 ‘다른’ 고백의 정치」, 『코기토』 No. 97,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89-128쪽.
- 노현우·김아영, 「이주체계이론으로 본 북한 이주민의 서구 국가 이주 요인: 영국과 캐나다 사례 분석」, 『통일정책연구』 Vol.31 No.2, 통일연구원, 2022, 1-44쪽.
- 배개화, 「탈북의 서사화와 문학적 저널리즘-장진성과 지현아의 탈북 수기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No. 17, 구보학회, 2017, 231-261쪽.
- _____, 「한 탈북 여성의 국경 넘기와 초국가적 주체의 가능성」, 『춘원연구학보』 No. 11, 춘원연구학회, 2017, 209-236쪽.
- 서세립, 「탈북자 수기에 나타난 감정과 도덕」, 『이화어문논집』 Vol. 45, 이화어문학회, 2018, 159-185쪽.
- 이소희, 「탈북이주여성 자전적 서사에 나타난 생존의 정치학: 박연미의 『살기 위해서』를 중심으로」, 『영미문학페미니즘』 Vol.28 No.3,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20, 69-113.
- 이지은, 「유동하는 텍스트(fluid text)와 북한 재현 양상」, 『춘원연구학보』 No.13, 춘원연구학회, 2018, 497-532쪽.
- Cho, Eun Ah, “Speaking Mouth, Writing Hand: The English-Language Autobiograph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Concept of Author Vocal-Writing”, *Situations: Cultural Studies in the Asian Context*, Vol.13 No.2, 2020, pp. 97-123.
- Cussen, John, “On the Call to Dismiss North Korean Defectors’ Memoirs and on Their Dark American Alternative”, *Korean Studies* Vol. 40, Honolulu: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6, pp. 140-157.
- García, Ana Belén Martínez, “Unearthing the Past: Bringing Ideological Indoctrination to Light in North Korean Girls’ Memoirs”, *AUTOBIOG-*

RAPHY STUDIES, Vol. 32, No. 3, 2017, pp. 587-602.

Gauthier, Brandon K., "Hope By Itself Is Not Enough : the soft power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29. no. 2, Fall/Winter 2015, pp. 106-139.

Jolley, Mary Ann, "The Strange Tale of Yeonmi Park", *THE DIPLOMAT*, December 10, 2014.

Stephens, Alice, "Book Review: A Thousand Miles to Freedom: My Escape from North Korea", *Washington Independent Review of Books*, 2015.8.17.

Abstract

The 'Americanization' devices of the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Texts

Lee Jieun

This paper focuses on North Korean women's escape narratives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2010s and points to the "Americanization" of these texts. The "Americanization" means that the universal discourse that is being agendized as a human rights issue for North Koreans is produced and consumed in ways that privilege American human rights discourse. The "Americanization" of North Korean women's texts can be summarized in three ways. First, the "girlshization" of North Korean women. The image of the "innocent girl" is contrasted with North Korea's totalitarianism to make the horrors more real, but it also portrays the free world of the United States as an idealized and tolerant place for the girls to go. Second, there is the "ghostwriter" who reflects the desires of the implied reader. The ghostwriter's role is to produce a text that is "readable" to a Western readers. In this case, "readable" means not only linguistic translation, but also cultural and ideological adaptation that is familiar to Western readers. Third, it reproduces the neo-Cold War world map. The defector moves from 'North Korea→China(→Mongolia)→South Korea→U.S.' according to the route of the witness, and the representation of each country (re)produces the Cold War system. If North Korea is a totalitarian state with "excessive power," China is depicted as a "state of nature" with no functioning police power. On the other side of the spectrum, the United States is represented as the free world, with South Korea as a transit

point to reach it. Identifying the devices of “Americanization” in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texts reaffirms that Servalton’s speech is always at risk of being captured by dominant discourses and deconstructs discursive structures that place responsibility for the authenticity of defection texts solely on the defector.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memoir, female narrative, ghost writer, Park Yeonmi, Lee Hyeonseong, Kim Eunsun

논문제출 / 2023. 11. 17.

논문접수 / 2023. 11. 23.

게재확정 / 2023. 12. 07.